

잡학서고 지식의 기록

피해만큼 값을 매긴다, 피구세(Pigouvian Tax)

원문 주소

<https://www.gklibrarykor.com/10124/>

PDF 미리보기 ·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온 연기는 공장 주인의 장부에는 아무런 비용으로 적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기를 마시는 이웃은 병원비를 내고, 빨래를 다시 하고, 맑은 하늘을 잃습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과 비용을 치르는 사람이 서로 다른 셈입니다. 이렇게 가격에 담기지 않은 피해를 세금으로 바로잡자는 생각이 바로 ‘피구세(Pigouvian Tax)’입니다. 피구세란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활동에, 그 피해만큼의 세금을 매겨 시장 가격이 실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만드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가 1920년 『후생경제학(The Economics of Welfare)』에서 펼친 생각에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피구세가 바탕으로 삼는 외부효과라는 개념부터, 세금이 시장을 바로잡는 원리, 오늘날 쓰이는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이 세금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다른 해법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피해만큼 값을 매긴다, 피구세의 원리와 쓰임 피구세의 출발점, 외부효과 피구세를 이해하려면 먼저 시장 밖으로 새어 나가는 비용과 이익, 즉 외부효과를 알아야 합니다. (1) 거래에 끼지 않은 사람